

회원사

코오롱정보통신

KORNET망 2차

구축사업 시행자로 선정

종합정보통신사업자인 코오롱정보통신(대표이사 송대평)은 한국통신이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전국 13개 지역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는 인터넷망인 KORNET의 1차 사업자에 선정에 이어 2차 사업 시행자로 연속 선정되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망구축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오롱정보통신은 이번 2차 공개 입찰경쟁에서 협력업체인 미국 CISCO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경쟁에 참여했는데, CISCO사는 앞으로 장비 납품업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코오롱정보통신은 SI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코오롱정보통신은 2차사업 구축방안으로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및 접속율을 높이고 대기횟수를 줄이기 위해 2개 전화국(구로, 신계주)

에 추가로 서비스망을 증설하고 기존 T1급(1,544MBPS) 백본망에서 T3급(45Mbps) 백본으로 서비스망을 연결하여 전송속도를 고속화시킬 방안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구축완료하여 9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KORNET의 성격이 전국 13개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상용기간망이고 세계 최대의 학술 연구망인 인터넷을 접속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전초사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코오롱정보통신은 KORNET사업을 계기로 향후 국가 기간망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원정보기술

조직정비 LAN시장에

새롭게 진출

미원정보기술(대표 박태성)이 최근 무선LAN분야 조직을 정비하고 새롭게 진출한다고 밝혔다.

신규 조직된 NI사업팀에서는 Telson사의 자회사인 Aironet사와 ARLAN시리즈(무선 허브, 무선 브리지 데스크탑용 무선 LAN 카드, 노트북용 무선 PCMCIA카드)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6월에 국내 형식검정을 마쳐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다.

이 ARLAN시리즈의 제품들은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2Mbps의 전송속도를 가지며 최대 도달거리는 실내 사무실 환경에서는 150m~300m이며 실외 환경에서는 5Km이다.

미원정보기술은 또한 기존의 NCR, 모토롤라, 프락심에 비하여 최대 사용반경이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특히 2.4Ghz 주파수대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무선 LAN은 정부가 동일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저출력에 한해 무허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은 물론 기존 유선 LAN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 및 이동성이 우수함으로서 유통백화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자동화환경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C용 백업 장비

"PEREOS"출시

최근 컴퓨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래픽이나 비디오 영상분야는 물론 일반업무에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서 고용량의 저장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원정보기술(대표이사 박태성)은 새로운 차원의 PC용 백업장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트리지, 테이프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 백업장비는 기존의 저장장비와는 달리 드라이브 크기가 마우스만 하고 카트리지가 우표크기만하여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카트리지 하나에 1.25GB를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지 데이터를 관리, 보호,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제품가격의 데이터베이스 등 유통정보를 비롯하여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대용량의 그래픽 파일, 이미지, 설계도면 등 고용량 저장에 필요한 그래픽이나 비디오용 분야에 적용이 예상된다.

또한 미원정보기술은 타백업장비와 비교해 볼때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간편하며 DC6000과 비교하였을 경우, 전송속도는 비슷하나 용량의 크기와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밝혔다.

특히 스케줄 관리에 의한 백업기능과 자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지정된 날짜에 백업이 가능하며 백업 당시의 파일 버전 그대로 복구가 가능하며, 인공지능 검색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화일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병렬 포트"로 인터페이스하기 때문에 노트북과 데스크탑 PC와 간단히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은 매킨토시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데이콤

천리안매직콜 '한글인터넷사이트 정보'서비스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최근 미래정보기술사와 한글 인터넷 사이트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3일부터 "천리안 매직콜"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앞으로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한글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라 할지라도 쉽게 정보의 소재나 출처를 검색할 수 있어, 가장 큰 관심사였던 노웨어(Know Where)에 대한 욕구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 뉴스와 주목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What's New & What's Cool"을 비롯해 "오락/이벤트/스포츠", "학술/건강", "정치/경제/문화", "과학/컴퓨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자신이 원하는 추천사이트 및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함께하는 네티즌" 항목이 있다. 그리고 키워드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3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의 인터넷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형태는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특징, 이용법, 변경안내 등은 문자로, 대표적인 홈페이지나 하위 디렉토리상의 화면은 이미지로 제공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된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인터넷 웹서비스 검색도구인 넷스케이프 등에서 제공하는 서치기능이나 디렉토리 방식으로 정보를 추적해야 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색이 어려웠다.

대신정보통신

주식 장외시장 등록, 3년내 공개예정

대신정보통신(대표 양성삼)은 3년내 기업공개 기반조성을 위해 1995년 9월 29일자로 한국증권협회로부터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10월 6일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개시했다.

대신정보통신은 SW사업, SI사

업 및 네트워크사업, 멀티미디어사업, POS 및 주변기기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

SW사업은 금융관련 팩키지상품(유가증권 종합관리시스템,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주택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삼성화재등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판매하였고, 최근에는 UNIX와 PC의 미들웨어인 'INFORWAY'를 개발 완료했다.

SI사업은 자체 부가가치통신망인 'DS-NET'을 이용한 통신망 운영, 대여 사업과 기업의 LAN, WAN등 통신컨설팅, 장비판매를 위주로 이미 동양화학그룹, 세모그룹 등에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한방직그룹의 그룹정보종합통신망구축을 수주받아 설치중에 있다.

멀티미디어 사업은 '광역일 생활영어' 외 5종의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자체개발,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CD-ROM Drive가 내장된 멀티미디어 노트북 PC인 '빈센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이외에도 기업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설치하여 총매출의 15%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기반기술력을 배양하고, 신기술개발, 신상품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정보관리기술사 2명, 정보처리관련 석·박사 12명, 정보처리기사 1급 소지자 42명등 전체인원 105명중 과반수 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기업의 정보시스템 통합컨설팅,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하의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멀티미디어등의 사업을 펼치며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LG-EDS시스템

기업윤리교육 실시

LG-EDS시스템(대표 김영태)은 그룹 차원의 정도경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16번에 걸쳐 기업윤리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이동통신

무선망설계시스템 자체개발 성공

한국이동통신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여의 연구끝에 영국 레이저스캔사의 GIS툴 “고딕”을 바탕으로 한국형 무선호출 기지국(셀)포지셔닝 시스템(모델명 플래닛) 개발에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무선망 설계툴과는 달리 2, 3차원 지형정보나 지도 데이터, 행정구역 데이터와 같은 지형지물정보등과 중첩해 보면서 사용자의 전파분포 상태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래닛”은 또 10MHz~20G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며 △ 수신신호 세기 △ 채널별 신호대 간섭비 예측 △ 핸드오프 지역 분석 △ 통화량 분석 △ 링크 균형 분석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 사업본부의 CDMA사업 기지국 선정계획 업무 및 서울지역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등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전파예측 모델 이외에도 새로운 전파예측모델등을 추가

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정보통신

호주 ERM사 RS데이터분석 프로그램 공급

쌍용정보통신(대표 김용서)이 호주 ERM사의 원격탐사(RS)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인 “ER매퍼5.0”의 공급에 나섰다.

ERM사의 국내대리점인 쌍용은 지난 10월 6일 “ER매퍼 5.0”제품 발표회를 갖고 향후 이 프로그램의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통한 위성지도데이터사업 활성화를 모색해나가기로했다. 새로이 발표된 “ER매퍼 5.0”은 윈도NT와 윈도 95 환경에서 사용되며 GIS 데이터상의 라스터와 벡터이미지를 통합하는 기능을 부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ER매퍼 4.0”과는 달리 윈도에 기반을 둔 유닉스 워크스테이션및 PC에서 모두 운용되며 이미지처리 및 고도를 포함한 3차원 이미지의 화면 처리와 출력력이 가능하다. 또 벡터및 라스터 자료등 거의 모든 종류의 업계표준 포맷을 지원하며 출력자료는 다른 GIS 소프트웨어와 접속이 쉽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가 선택 정의한 처리 단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생성되며 필요시 알고리즘 수정이 가능하다. 쌍용의 ER매퍼 관계자는 오는 12월중 발표될 5.1버전에는 △ 스캐터그램기능 △ 비틀림기능 △ 3차원 플라이기능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정보통신

혈액종합정보통신망 구축
한진정보통신(대표 고충삼)이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전국 적십자 혈액원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수주했다.

한진정보통신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의 서울(중앙, 남부, 동부), 부산, 대구, 경북, 인천, 제주, 울산 등 전국 17개 지방혈액원과 “헌혈의 집”의 혈액사업(검사, 홍보, 공급수혈, 헌혈자 관리)을 서울의 중앙시스템에 분산처리가 가능한 LAN 및 한진그룹의 종합정보통신망인 HANJIN-NET를 활용, 서비스하기로 했다.

한진정보통신은 HANJIN-NET를 프레임워크로 전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통신효율 및 시스템 가동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한진정보통신은 적십자사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그룹내 종합의료기관인 인하대병원의 성남병원과 인천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계기로 의료정보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동진정보통신

사업권 동진프론티어로 이양
전자문서교환(EDI) 및 VAN(부가가치통신망)관련 SW개발업체인 동진정보통신이 자금난으로 이달안에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사업권은 기존 동진정보통신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설립한 동진프론티어(대표 박용순)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고려시멘트에서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오던 동진정보통신은 고려시멘트가 올초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해 지원이 중단되자 모든 사업을 이달중으로 완전 정리하고 사업권은 동진프론티어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진프론티어는 이에 따라 동진 정보통신이 수행하던 EDI솔루션, MHS솔루션, 포터블 VAN 솔루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동진정보통신 고객들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도 넘겨받아 고객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장비 및 대규모 자금 투자가 뒤따라야하는 네트워크 구축사업분야와 SI(시스템통합)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진정보통신의 주요 고객은 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권이 대부분이며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10여개 시중은행들에 EDI솔루션을 공급 해왔다.

대신C&C

디지털가입자장치 개발

종합정보통신 전문회사인 대신 C&C(대표 장용철)가 2천4백bps

~ 64Kbps급까지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가입자장치(DSU)를 개발했다. 대신C&C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여간 모두 1억2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며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신 C&C가 개발한 이 DSU(모델명 DSA-DSU 64)는 단독형과 집합형 등 2개의 모델이 있으며 무게는 9백 60g, 크기는 3백5×1백87×36mm로 소형경량의 고성능성을 구현했다.

이 DSU는 동기 및 비동기방식을 채택했고 에러체크에 의한 선로진단기능, 자국 아날로그루프 및 원격 디지털루프에 의한 고장진단기능, 장비에 내장된 스위치로 다양한 기능선택, 선로속도 자동인식기능, 옵션제어포트를 통한 변경 및 저장정보의 역호름으로 인한 다중망 보

호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DSU는 타제품과는 달리 옵션제어포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스위치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사용자가 여러가지 명령어를 저장해 장비를 운영 할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대량전송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거나 4선케이블을 이용해 장비와 직접연결시켜 근거리전송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데 이 콤

국내 인터넷마인드 조사

데이콤(대표 손익수) 인터넷사업팀이 최근 컴퓨터통신 서비스 사용자 2천9백 3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은 아직 초보수준이고 올 하반기를 지나서는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PC통신 이용경험이 3개월이하인 사람이 62%로 초보단계가 많고, 주이용계층은 20대의 대학(원)생과 전문직 종사자로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 직장인들의 이용이 아직 태동기에 있고, 인터넷을 이용중인 기업보다는 이용을 검토중인 기업이 많은 뿐만 아니라 확산일로에 있는 월드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증가추세에 비춰 올해 말을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 2천9백34명중 남자가 81%를, 직

업별로는 기술분야 종사자가 1천2백39명(42%), 대학(원)생이 4백65명(58%)으로 국내 인터넷에 관심을 가진 층이 아직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타분야 종사자가 6백31명(22%)이고 무응답자가 4백28명(15%)으로 사용층이 다양화,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사용연령층은 20대(1천6백18명 55%)와 30대(7백11명 24%)가 주이용하고 있으며, 10대 2백50명(9%), 40대이상도 4%인 1백20명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사용예정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55%인 1천6백16명으로 기사사용자인 1천2백41명(42%)보다 많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기업의 인터넷이용은 21%만이 사용한다고 응답, 개인이용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이 통신망과의 통합과 인터넷에 대한 효용성등을 조사중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